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고양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최근 종교시설 집단감염 발생을 시작으로
추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등
고양시는 매우 심각한 상황 속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스크 밖으로 새는 내 입김이 줄어드는 만큼
코로나19 감염위험 역시 줄일 수 있다는 각오로,
올바른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외부활동 자제, 방역 수칙 준수 등
다시 기본에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모든 곳에서 멈춰서야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나,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기를,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양시도 코로나19가 잦아드는 그 날까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 고양시장 -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고양시 비상방역체계 강화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전국이 비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고양시는 추가 확산 방지와 방역을 위한 방안들을 강력히 실천하고 있다.

#1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강화

시는 고양시민관의료협력체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재확산되지 않도록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방역조치로 8월 8일 고양시 전역에 대해 종교시설 소모임, 단체급식 등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다. 또한, 8월 19일부터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 조치함으로써 예배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했다. 지난 8월 25일에는 민·관이 힘을 모아 고양시 전역 다중이용시설 750곳에 일제 방역을 실시했다. 노래방, PC방, 유흥·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계도와 함께 행정점검도 실시됐다. 이와 함께 시장·대형마트, 식당 등 다중집합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없이 출입을 금하도록 하고 고양시 공공도서관, 실내체육관,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폐쇄하도록 조치했다.

#2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 재가동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지난 8월 9일부터 재운영하고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며 코로나 의심 유증상이나 증상이 없지만,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안심카 선별진료소에는 반드시 동승자 없이 혼자 방문해야 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평일·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공휴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운영한다. 이에 따라 보건소의 모든 진료, 예방접종, 찾아가는 방문사업 등은 전면 중단되며 최소한 법정 민원사무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등 업무는 계속 운영한다.



고양시 선별진료소 검사



일제 방역의 날 실시

다중이용시설 집중점검

